Global Market Report 20-022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일자리 창출 선도

kotra

#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GVC 재편 동향

## -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 -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 목 차


## 요약

## Ⅰ. GVC 확산 배경 및 재편 요인 / 1

*1* 1. GVC 확산 배경
*4* 2. GVC 재편 요인

## Ⅱ. 최근 통상환경 변화 및 GVC 재편 양상 / 7

*7*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9* 2. 최근 GVC 재편 양상 및 전망
*14* 3. 글로벌 기업의 GVC 재편 사례

## Ⅲ. Post-코로나19 GVC 재편 전망 / 18

*18* 1. GVC의 지역화(Localized) 및 자국화(Nationalized)
*20* 2. GVC의 서비스화(Servitized) 및 고도화(Advanced)
*21* 3. GVC의 위기 대응력(Just in case) 제고

## Ⅳ. 결론 및 시사점 / 22

# 요 약

## □ GVC 확산 배경 및 재편 요인

○ '90년대 중반 이후 WTO 출범으로 인한 자유무역의 확산, 통신·운송기술의 발전에 따른 거래비용의 감소, 선진국-신흥국간 국제 분업특화, 서비스 산업의 발달이 GVC 확산 주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최근 신흥국의 지속적인 임금 상승, 각국의 리쇼어링 확대,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세계교역 비용 증가, 질병·자연재해로 인한 공급망 위기관리 필요성 대두, GVC 내에서 무형자산 보호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GVC 재편 움직임 확대

## □ 최근 통상환경 변화 및 GVC 재편 양상

○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미중 통상분쟁 기조 지속, 북미지역 공급망 재편 목적의 USMCA 발효, CPTPP·RCEP 등 아태지역의 경제블록 형성, 양자 FTA 체결 확대 추세로 요약

○ 코로나19로 공급망 단절을 경험한 각국은 위기관리 능력과 복원력을 갖춘 공급망 확보 전략으로 전환

- 안정성·위기 대응 중심의 GVC, USMCA·CPTPP 등으로 지역적 분화, 고부가가치·친환경 중심의 새로운 GVC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

○ 글로벌 기업의 GVC 재편 사례

- 탈중국 사례

| 기업명 | 이전 경로 | 세부 내용 |
|---|---|---|
| 애플 | 중국 → 베트남·인도 | · 中 생산 에어팟 물량의 30%를 베트남에서 생산<br>· 中 생산 아이폰 물량의 20%를 인도 생산 계획 |
| 구글 | 중국 → 베트남·태국 | ·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픽셀4a 생산, 픽셀5 생산 계획<br>· 태국에서 음성인식 인공지능 스피커 생산 예정 |
| 마이크로소프트 | 중국 → 베트남 | · '20년 내 노트북 및 태블릿PC 생산 예정 |
| 샤프 | 중국 → 베트남·태국 | · 차량용 LCD 생산 중국공장의 베트남 이전<br>· 美 수출용 복합기 생산 중국공장의 태국 이전 결정 |
| 쿄세라 | 중국 → 베트남 | · 美 수출용 복사기, 복합기의 베트남 생산 추진 |
| 카시오 | 중국 → 태국·일본 | · 손목시계, 전자악기 중국공장 이전 착수 |
| 유니클로 | 중국 → 베트남 | · 美 수출용 의류 생산 중국공장의 베트남 이전 계획 |
| TSMC | 중국 → 미국 | · 美 애리조나주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예정 |

- 리쇼어링 사례

| 기업명 | 이전 경로 | 세부 내용 |
|---|---|---|
| 아디다스 | 중국·베트남 → 독일 | · 독일 내 로봇이 생산하는 스피드팩토리 설립<br>· 인건비 및 운송시간 절감 |
| 쿠스미 | 중국·모로코 → 프랑스 | · 원가 절감을 위해 본국으로 이전<br>· 생산공정 효율화로 비용 절감, 배송지연,·재고 문제 해결 |
| 포드 | 멕시코 → 미국 | · 미국 내 자율주행차 및 전기자동차 공장 설립 계획 발표 |
| 캐터필러 | 일본 → 미국 | · 굴착기, 트랙터 제조라인을 텍사스·조지아주로 이전 |
| 애플 | 중국 → 미국 | · 中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총 1억 달러 투자) |
| 아이리스오야마 | 중국 → 일본 | · 中 생산 마스크 공장을 일본으로 이전 |
| JDI | 중국 → 일본 | · 中 생산 차량용 디스플레이 일부를 일본 이전 계획 |
| 도요타 | 미국·캐나다 → 일본 | · 美 생산 캠리, 캐나다 생산 렉서스 RX 일본에서 생산 |

- 제3국 이전 및 중국 잔류 사례

| 기업명 | 이전 경로 | 세부 내용 |
|---|---|---|
| 파나소닉 | 태국 → 베트남 | ·가전제품 생산 태국공장을 시장 수요가 높은 베트남으로 이전 계획 |
| 에코 | 중국 생산 유지 | ·팩토리 2025로 덴마크 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기존 중국공장에서의 생산도 유지 |

## □ 향후 GVC 재편 전망

○ (지역화 및 자국화) 북미, EU,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국을 중심으로 지역화되고 필수·전략 산업의 생산 공급망을 자국 내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

○ (서비스화 및 고도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 분야로 전환되고, 첨단 기술과 기존 전통산업이 융합되는 미래산업 GVC로 재편

○ (위기 대응력 제고) 외부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체 생산망과 효율적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수급이 가능한 GVC 형성

## □ 결론 및 시사점

○ 새롭게 재편되는 GVC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은 GVC 재편 양상을 주시하며 대응전략 수립 필요

- 지역화되는 GVC에 진입, 미래산업형 핵심기술 개발로 고부가가치 GVC 진입, 위기 대응을 위한 재고 확보·관리 능력 제고,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GVC 진입전략 마련

# Ⅰ GVC(Global Value Chain) 확산 배경 및 재편 요인

## 1 GVC 확산 배경

### □ WTO 출범 등 자유무역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통합 가속화

○ WTO 출범('95년)에 따른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투자 자유화 등 자유무역이 확산되며 본격적인 세계화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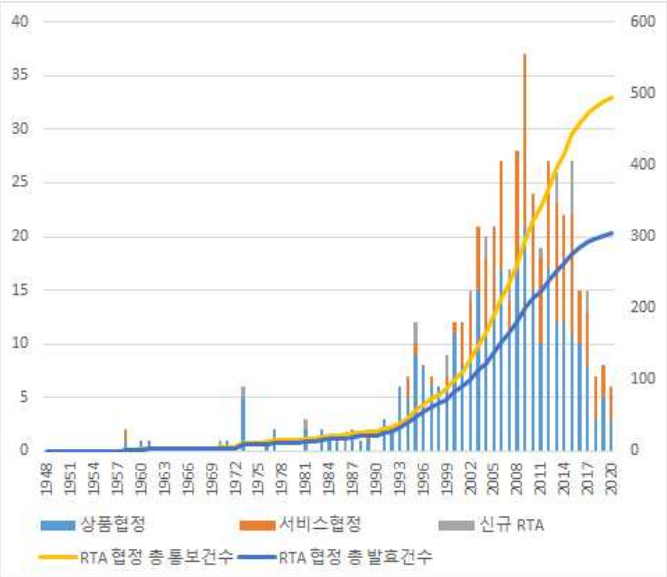
-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지역 내 국가간 체결된 무역협정도 급증

* '95년 WTO에 통보된 RTA는 58건에 불과했으나 '20.9월 기준 WTO 통보된 RTA는 총 494건, 발효된 RTA는 30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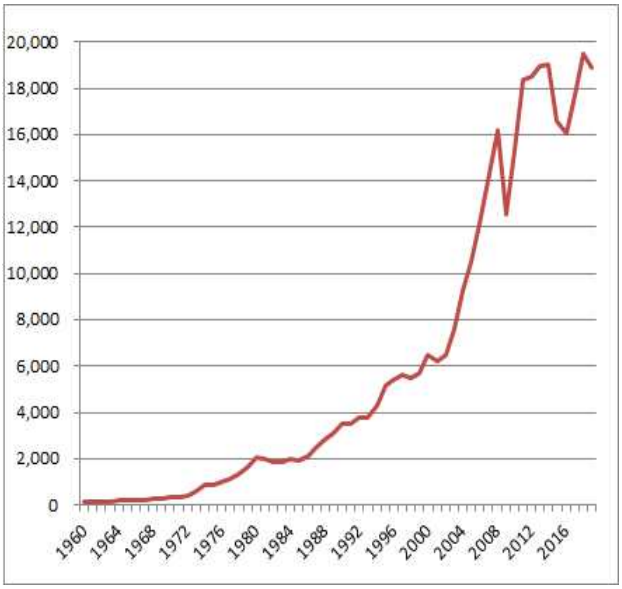
○ 중국의 WTO 가입('01년)은 중국 내 개혁과 개방을 통한 시장경제 정착 계기

- 중국은 고속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신흥시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세계경제 통합이 가속화

< RTA 확산 추이('48년-'20년) >




< 세계무역 규모('60년-'19년) >



* 자료원 : WTO (검색일 2020.9.14.)

## □ 통신 및 운송기술의 발전에 따른 거래비용의 감소

○ ICT 기술발전으로 국가간 연락비용 및 운송비용이 절감되었으며, 정보기술협정(ITA)*은 ICT 시장을 확대시키는데 큰 역할

*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은 WTO 복수회원국간 주요 IT 제품에 대한 무관세 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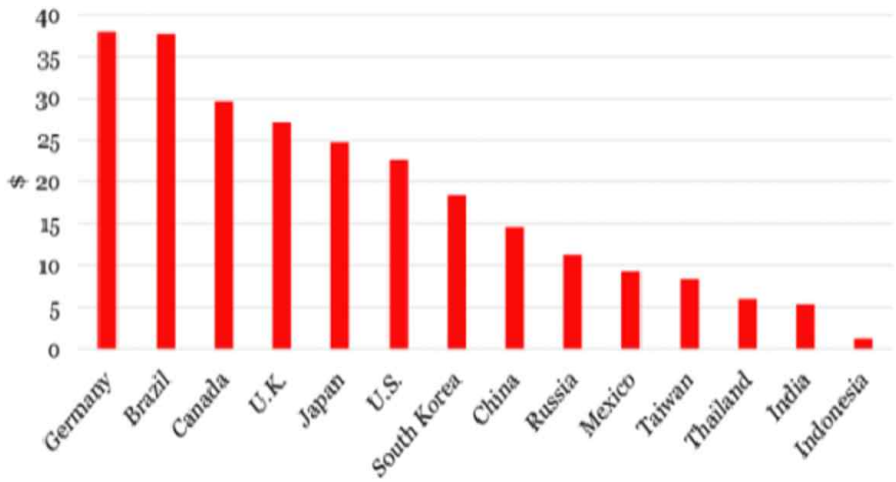
○ 최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 실시간으로 세계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중간재 생산 공급망에 전달이 가능해져 GVC 생산체제의 효율성 증진

## □ 선진국-신흥국간 국제 분업특화로 인한 GVC 체제 구축

○ 선진국과 신흥국간 임금 수준 및 생산원가 격차로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확대, 분업구조가 확립되며 GVC 체제가 구축

- 중국,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은 노동가능 인구가 풍부하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생산기지로서 이점 보유
- ICT 발전으로 선진국 본국에서 생산공정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시설을 신흥국으로 이전

< 주요국의 시간당 제조 인건비('16년) >




* 자료원 : The Street.com (2016.5.16.)

○ 신흥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구매력 증가는 생산기지를 넘어 소비시장으로 對신흥국 직접투자 요인으로 작용

○ 다국적 기업의 활발한 투자는 중간재 생산·공급, 현지 판매뿐 아니라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도 주도

- 또한 현지 기업들과 조달계약 추진을 통해 기업간 거래도 활발

## □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중심의 GVC를 유기적으로 연결

○ 제조기업이 생산에 더 많은 서비스 요소를 사용하거나 제조상품과 함께 서비스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제조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 발생

○ 연구개발(R&D)에 투자하여 기존 제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부가가치를 증가

○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여행업과 같이 서비스만으로 이루어지는 GVC도 발생

## 2 GVC 재편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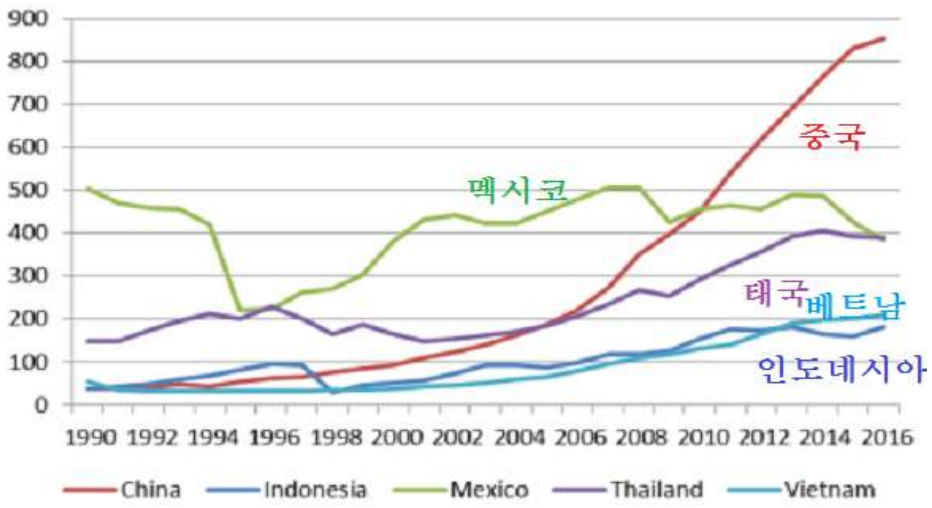
### □ 신흥국의 지속적인 임금 상승과 각국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 신흥국 지역의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은 해외 진출요인이었던 저렴한 인건비 요인이 사실상 사라져 생산거점으로서의 이점이 퇴색

* 신흥국 내 제조업 중심 GVC 구축 → 해외투자 증가 → 신흥국의 소득 증가 → 임금 상승

- 생산비 절감을 위한 투자 전략이 재고되기 시작, 인건비가 더 저렴한 다른 신흥국에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현상도 발생

< 주요 신흥국의 주당 평균 임금('90년-'16년) >




* 자료원 : 오피니언 뉴스 (2019.1.7.)

○ 미국·유럽의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리쇼어링* 현상은 각국 정부의 중장기적 산업정책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전세계 GVC 변화 주도

* 리쇼어링(re-shoring) : 기업의 해외 생산공정을 본국으로 재배치

## □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고관세 부과 조치로 전세계 교역 비용 증가

○ 미국과 중국의 상호 고관세 부과로 인한 전세계 교역 비용의 증가는 기존 구축된 GVC 체제의 약화 및 재편을 초래

- 각국은 신흥국의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중국에 구축한 공급망을 탈피하여, 인건비가 저렴한 신흥국으로 이전하거나 자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

○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 해소 및 기술패권 확보 목적에서 시작된 미중 통상분쟁은 환율,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전

- 미국은 자국이 비교우위를 보유한 기술 분야를 지키고자 미국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지재권 침해 우려가 있는 화웨이 등 중국기업을 제재 중

## □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관리 필요성 대두

○ 올해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이 각국 경제 및 생산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수준

- 세계화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이 강화되었고, 동시에 신흥국의 도시화·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감염병의 영향도 빠르게 확산
- '57년 아시아독감, '68년 홍콩독감 발생 등 이전에도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적이 있으나, 현재와 같은 GVC 체제가 구축되지 않았기에 경제 위기가 국지적으로 발생

○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지진, 대홍수,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도 중간재의 원활한 공급, 산업 생산체제를 훼손시켜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 질병, 자연재해 등에 기인한 이동제한으로 공급망 단절을 경험한 각국은 새로운 GVC 체제의 구축 및 위기관리 필요성을 절감

## □ GVC 내에서 무형자산 보호의 중요성 증가

○ GVC 내에서 무형자산을 보유한 국가나 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이 다수의 산업을 통해 증명

- GVC에서 고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은 제조와 같은 생산영역이 아닌 생산 이전의 기획·개발·설계·디자인이나, 생산 이후의 유통·물류·마케팅 등 관련 서비스 산업
- 중간재나 자본재와 같은 유형 고정자산보다 신기술, 정보, 데이터, 특허,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이 중요해지는 추세
- 무형자산 보호를 위한 안전지로 이전 수요 확산

**< 노트북컴퓨터 GVC에서 주요 업체별 수익 비중** (산업연구원. 2014) **>**

- 델(Dell) : 노트북컴퓨터 시장 주도업체. GVC 내에서 20% 수익 창출
- 인텔(Intel) : PC CPU 원천기술 보유. GVC 내에서 50% 이상 수익 창출
- 퀀타(Quanta) : PC 조립 및 생산업체. GVC 내에서 5% 수익 창출

# Ⅱ 최근 통상환경 변화 및 GVC 재편 양상

##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 최근 주요국은 분쟁과 협력을 포함한 통상정책을 통해 자국 중심의 가치사슬 구축에 주력

□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합의('19.12월)에 도달하였으나, 양국간 합의 내용 미이행 및 2단계 협상 난항 등 미중 통상분쟁 기조는 지속

< 미중 통상분쟁 경과 >

미국의 對中 301조 발동('18.3) → 1차 美·中 340억불 관세부과('18.7)→ 2차 美·中 160억불 관세부과('18.8) → 3차 美 2,000억불·中 600억불 관세부과('18.9) → 관세인상 유예('18.12) → 분쟁 재점화 및 관세인상('19.6) → G20 정상회담 및 협상재개 약속('19.6) → 4차 美 1,100억불('19.9)·中 750억불 관세부과('19.12) → 1단계 무역협상 합의('19.12)

○ 미국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국내법상 가용 가능한 대부분의 조치 활용

- (수입규제) 불리한 가용정보(AFA)·특수시장상황(PMS) 활용 통해 고관세 부과, 안보목적의 232조 통해 철강·알루미늄 旣조치('18.3월), 자동차·부품(조치연기)
- (환율) 對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20.1월), 상계관세 부과 규정발효('20.4월)
- (對화웨이 제재) 中 화웨이 본사·68개 해외계열사를 美 수출통제목록에 추가('19.5월), 38개 화웨이 해외계열사 美 수출통제목록에 추가('20.8월), 美 기술로 제조된 반도체의 화웨이·자회사 판매 금지('20.9.15일 시행)

□ 기존 NAFTA('94년 발효) 대체, 북미지역 공급망 재편 목적의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발효('20.7월)

<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 협상 경과 >

NAFTA 재협상 공식 선언('17.1) → 협상 개시('17.5) → 8차례 협상 진행('17.8-'18.5) → 미-멕시코간 NAFTA 재협상 타결('18.8) → 미-캐나다간 NAFTA 재협상 타결('18.9) → USMCA 출범('18.9) → 멕시코 USMCA 비준('19.6) → USMCA 수정안 서명('19.12) → 미국 USMCA 대통령 서명('20.1) → 캐나다 USMCA 의회 통과('20.3) → USMCA 공식 발효('20.7)

○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멕시코간 니어쇼어링* 추세가 가속화되어 멕시코가 미국 제조업의 주요 공급처가 될 전망

* 니어쇼어링(near-shoring) : 기업의 해외 생산공정을 본국과 가까운 지역으로 재배치

## □ CPTPP(포괄적·점진적 TPP),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블록 형성

○ CPTPP('18.12월 발효)는 아태지역 경제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환태평양 경제협력체

*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폴, 베트남, 말련, 브루나이 총 11개국 참여

- '17년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TPP 본래 의미가 퇴색되었으나, 일본 및 호주 주도로 새롭게 출범

**<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PP) 협상 경과 >**

美 주도로 논의 시작('09) → 19차례 공식협상('10.3-'13.8) → TPP 타결('15.10) → TPP 정식서명('16.2) → 트럼프 TPP 탈퇴 행정명령('17.1) → 11개국 TPP 추진 합의('17.5) → CPTPP 출범('17.11) → 정식서명('18.3) → CPTPP 공식 발효('18.12)

○ RCEP은 아시아 역내 공급망 통합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국 중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협정문 타결('19.11월) 이후 실질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

* ASEAN(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총 16개국 참여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 경과 >**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 협상 개시선언('12.11) → 1차 공식협상('13.5) → 28차 공식협상('19.9) → 15개국 협정문 타결('19.11) → 31차 공식협상('20.7) → 8차 장관회의 개최('20.8)

## □ 자국의 이익 관철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양자 FTA 체결 확대 추세

○ EU-일본 EPA('19.2월), 미국-일본 무역협정('20.1월), EU-베트남 FTA ('20.8월)가 발효되었으며 영국-미국 FTA('20.5월) 개시, 영국-일본 CEPA('20.9월) 체결

# 2 최근 GVC 재편 양상 및 전망

## 가. 안정성·위기 대응 중심의 GVC 체제로 전환

### □ 코로나19로 공급망 단절을 경험한 각국은 효율성을 중시하던 기존 GVC 관점에서 벗어나 안전, 위기관리, 복원력을 갖춘 공급망 확보 전략으로 전환

○ 코로나19로 중국 내 생산중단에 따른 부품 수급차질 및 필수재(의료 보호장비 등) 수입이 중단되어 국민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기존 가치사슬의 구조적 한계가 노출

### □ 기존 적시공급(Just in time)에서 공급망의 위험분산(Just in case) 전략으로 수정하며 안정성 추구

○ 생산공정, 비용, 지재권 등을 이유로 단일 기업·특정 지역에 의존하는 경직된 가치사슬은 유통·물류·생산 등 일시적 혼란이나 예기치 못한 질병·재난·외교적 갈등에도 전체가 취약해지는 상황 초래

○ 비교우위에 따른 경직된 가치사슬에서 자국 중심의 가치사슬 또는 여러 대체 공급국가로부터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체제로 변환될 것

### □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를 포함한 기업의 경영관리 능력 향상

○ 생산 공급망 투명화, 생산시설 유연성 제고, 대체 공급처 개발, 운송 네트워크 구축, 재고관리 능력 향상, 리스크 관리 점검 등 대비

## 나.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적 분화

### □ (미국) USMCA를 통한 미국 중심의 북미지역 가치사슬 구축 및 국산화 정책

○ 북미 중심의 공급망 구축 공고화 및 니어쇼어링 추세 가속화

- 기존 NAFTA('94년 발효)를 대체하는 무역협정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경제에서 새로운 무역질서 확립 의지 내포
- 역내 원산지 기준 강화, 노동 및 철강·알루미늄 조항 신규 도입으로 완성차 제조 공급망의 미국 집중 목적
- 비시장경제국(중국 등)과 FTA 체결 시 체결의사를 회원국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중국의 북미시장 공급망 참여 견제

**< USMCA의 주요 내용 >**

- **(부가가치기준)** 역내산 부품 사용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단계적 인상
  * 특히, 핵심부품(엔진·변속기 등)은 반드시 역내산 비율 75% 이상
- **(노동)** 역내산 부품 중 40-45%는 시급 16달러 이상의 노동자에 의해 생산
- **(철강·알루미늄)** 역내 조달률 70% 이상
- **(비시장경제국과 FTA 체결 제한)** 비시장경제국과 FTA 체결 시 체결의사를 회원국에 사전 통보, 위반 시 USMCA는 양자 체제로 전환

○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리쇼어링 지원

- 법인세 인하(28%→21%), 개인보호장비(PPE)·복제의약품·제약원료 관련 리쇼어링 기업 지원 등 필수 제조업의 본국 회귀 정책 추진

○ 핵심 필수산업의 국산화

- 인프라 프로젝트(철강), 의료용품·의약품 등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법안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국내 복귀 지원
-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여 기업에게 부족한 의료물자 조달과 국내 증산을 명령하고 정부가 유통과 분배를 관리
  * '50년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물자 조달과 증산, 임금과 물가통제에 이르는 폭넓은 권한을 대통령에 위임

○ 북미지역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혁신적인 생산공정에 근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혁신형 GVC가 될 것으로 전망

## □ (유럽) 핵심산업 위주로 EU지역 중심의 가치사슬 구축

○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유럽 GVC의 한계가 부각되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기술수준이 높고 제조업 생산능력이 갖춰진 국가를 중심으로 대외 충격에 안정적인 가치사슬 구축 필요성 확산

- 단기적으로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자국 또는 EU지역으로 리쇼어링
-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항공우주, 의약품 등 유럽의 주요산업에 대한 지역가치사슬 구축. 기존 적시공급(Just in time)에서 위험분산(Just in case) 전략으로 전환하여 안정성 추구

○ (독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GVC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

- 자국의 높은 품질 경쟁력과 산업발전 전략에 따라 리쇼어링 필요성 확산. 의료·에너지 분야의 리쇼어링 및 보건·안보 분야의 니어쇼어링 정책 지원 강화

○ (프랑스) 기존 산업구조를 미래형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GVC 체제로 재편될 전망

- 의료산업의 해외 의존도 분산, 친환경자동차의 국내 생산 의무화, 제로·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중심의 정책 마련 중

○ (영국) 코로나19,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기존 공급망 재편 필요성 대두. 수출입 촉진 지원정책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 방향으로 전환 예상

- 의약품과 전략산업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률을 높이는 '디펜스 프로젝트' 계획 수립

○ 일부 EU국가는 이전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 목적 등의 이유로 완전한 탈중국화에는 신중한 입장

□ (아태지역) CPTPP 등을 통해 아태지역 경제블록 가치사슬 구축

○ CPTPP는 중국 주도의 RCEP에 대응하기 위한 아태지역의 GVC 구축 목적

- 누적 원산지 조항에 따라 역내에서 수입된 중간재를 사용해도 원산지로 인정되어 역내 생산뿐 아니라 중간재 교역도 활성화
- 일본 등 ASEAN 역내 공급망 旣구축한 제조사의 경쟁력은 강화되는 반면, 역내 공급망에 참여하려는 신규 진입국가에게 높은 장벽으로 작용

○ (일본) ASEAN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분업체계 구축 지속 추진

- 이미 '06년부터 China+1 전략에 따라 중국의 대체 투자지로 ASEAN에 투자하기 시작. '11년부터 ASEAN 지역에 본격적으로 가치사슬이 구축되어 ASEAN 역내 공급망이 강화
- 최근 '해외 서플라이체인 개혁 정책'을 통해 제조 주요기업의 국내 생산거점 신설과 이전 지원.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방역용품, 희토류 등 원자재가 주요 대상

## 다. 고부가가치·친환경 중심의 새로운 GVC 체제

□ 기술의 발전으로 고부가가치 기술과 서비스 산업 중심의 새로운 GVC 체제 등장

○ ICT 핵심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은 노동력 및 신기술 활용을 핵심으로 하는 GVC 체제가 구축될 전망

- 5G,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기술발달로 생산활동과 재고관리를 연계하여 인건비 절감이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

○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간 구분이 모호해지며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서비스업의 제조화가 동시에 발생

* 유니클로(Uniqlo)는 해외 각국에서 의류소매업으로 분류된 서비스 기업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의류를 가공하고 있는 제조기업. 애플(Apple)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글로벌 제조기업이지만, 미국에서는 연구개발에 특화된 서비스 기업으로 분류

## □ 친환경적인 새로운 GVC 체제로의 전환

○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친환경재 수출 비중 증가로 기존 비친환경적인 GVC 체제에 제약이 가해질 전망

- GVC 체제 속에서 천연자원, 에너지 등의 환경 관련 요소가 필요하므로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은 필연적 결과
- 글로벌 기업들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중간재 아웃소싱 교역을 줄이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체제로 전환을 고려하기 시작

## 3 글로벌 기업의 GVC 재편 사례

□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기존 가치사슬 재편 가속화

□ 탈중국 이전 사례

*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고관세 회피, 사업 불확실성 해소, 높은 對中의존도 분산 등이 이전 요인

○ 애플(Apple)

-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 해소와 對中 의존도 낮추기 위한 목적. 중국 생산시설의 30% 정도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전 계획.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협력업체들에게도 생산라인 일부를 다른 나라로 옮길 것을 요구
- (베트남) 중국에서 생산하던 에어팟 생산 중
- (인도) 향후 5년간 중국 생산 아이폰 물량의 20% 생산 계획

< 애플 협력업체의 탈중국 이전 현황 >

| 기업명 | 모델(제품) | 현 생산국가 | 이전국가 |
|---|---|---|---|
| 폭스콘(Foxconn) | 아이폰(스마트폰) | 중국 | 인도 (계획)<br>멕시코 (이전 검토) |
| 페가트론(Pegatron) | 아이폰(스마트폰) | 중국 | 베트남 (공장 건설) |
| 위스트론(Wistron) | 아이폰(스마트폰) | 중국 | 인도 (생산 중) |
| 콤팔(Compal) | 아이패드(태블릿PC) | 중국 | 베트남 (공장 건설) |
| 고어텍(Goretek) | 에어팟(무선이어폰) | 중국 | 베트남 (생산 중) |
| 럭스쉐어(Luxshare) | 에어팟(무선이어폰) | 중국 | 베트남 (공장 건설) |

* 자료원 : 각종 자료 종합

○ 구글(Google)

- (베트남) '20.4월부터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4a를 베트남에서 생산. 신규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 픽셀5도 베트남에서 생산 계획
- (태국) 음성인식 인공지능 스피커 네스트 미니 생산 예정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보다 빠르게 생산기지 이전 검토
- (베트남) '20년 내 노트북 및 태블릿PC Surface 제품군 생산 계획

○ 샤프(Sharp)

-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고관세 회피 목적
- (베트남) 중국의 차량용 LCD 생산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 베트남에서 생산 후 미국으로 수출 예정
- (태국) 중국에서 생산하던 미국 수출용 복합기 생산공장 이전 결정

○ TSMC

- (미국)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통상 분쟁에 따른 미국의 압박으로 미국 내 생산공장 건설 결정

□ 리쇼어링 사례

* 법인세 인하, 제조업 육성정책,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한 일자리 창출, 생산공정 효율화 등이 이전 요인

○ 아디다스(Adidas)

- 독일에 스피드팩토리(Speed Factory)를 설립하며 동남아시아 생산 공장을 본국으로 이전
- 자동화된 생산라인으로 인건비·시간 절감, 소비자 맞춤형 현지 소량 생산 가능, 운송비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의 이점

* 그러나 작년 11월 독일 스피드팩토리를 폐쇄하며 해당 기술을 아시아 공장에 적용하겠다는 입장 표명. 생산 노하우와 공급망이 있는 아시아에서 생산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사유로 현재까지 중국과 베트남 2곳이 이전 대상국가로 알려짐.

○ 쿠스미(Kusmi Tea)

- 프랑스의 대표적인 차(茶) 브랜드,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 모로코 등지에서 생산하였으나 프랑스 본국으로 이전
- 생산공정의 효율화를 통해 비용이 절감되었으며 품질 향상으로 매출 상승.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배송지연 및 재고문제도 해결

○ **포드(Ford)**

- 멕시코의 픽업트럭 생산라인을 미국 오하이오주로 이전, 중국에서 생산하던 상업용 밴을 미주리주에서 생산
- 미국 내 자율주행차 및 전기자동차 공장 설립 계획 발표

○ **제네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 멕시코의 냉장고, 온수기, 세탁기 제조라인을 미국 본국으로 이전

○ **아이리스오야마**

- 중국에서 생산하는 마스크 공장을 일본 본국으로 이전

○ **JDI(Japan Display Inc.)**

- 액정패널 생산업체로 중국에서 생산되던 일부 차량용 디스플레이 생산물량을 일본 본국으로 이전 계획

□ **원투자국에서 제3국으로의 이전 사례**

* 인건비 상승, 소비시장 접근성 강화 등이 이전 요인

○ **파나소닉(Panasonic)**

-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던 태국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 계획.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잠재력이 높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시장으로도 확장 계획

□ **원투자국 또는 중국 잔류**

* 소비시장 접근성 강화, 이전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등이 잔류 요인

○ **에코(ECCO)**

- 덴마크의 신발업체로 '팩토리 2025'를 통해 덴마크 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기존 중국공장에서의 생산도 유지한다는 입장

## < 글로벌 기업의 GVC 재편 사례 >

| 유형 | 기업명 | 이전 경로 | 세부 내용 |
|---|---|---|---|
| 탈 중국 | 애플 | 중국 → 베트남·인도 | ·中 생산 에어팟 물량의 30%를 베트남에서 생산<br>·中 생산 아이폰 물량의 20%를 인도 생산 계획 |
| | 구글 | 중국 → 베트남·태국 |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픽셀4a 생산, 픽셀5 생산 계획<br>·태국에서 음성인식 인공지능 스피커 생산 예정 |
| | 마이크로소프트 | 중국 → 베트남 | ·'20년 내 노트북 및 태블릿PC 생산 예정 |
| | 샤프 | 중국 → 베트남·태국 | ·차량용 LCD 생산 중국공장의 베트남 이전<br>·美 수출용 복합기 생산 중국공장의 태국 이전 결정 |
| | 쿄세라 | 중국 → 베트남 | ·美 수출용 복사기, 복합기의 베트남 생산 추진 |
| | 카시오 | 중국 → 태국·일본 | ·손목시계, 전자악기 생산 중국공장 이전 착수 |
| | 유니클로 | 중국 → 베트남 | ·美 수출용 의류 생산 중국공장의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으로 이전 계획 |
| | TSMC | 중국 → 미국 | ·미국의 압박으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예정 |
| 리쇼어링 | 아디다스 | 중국·베트남 → 독일 | ·독일 내 로봇이 생산하는 스피드팩토리 설립<br>·인건비 및 운송시간 절감 |
| | 쿠스미 | 중국·모로코 → 프랑스 | ·원가 절감을 위해 본국으로 이전<br>·생산공정 효율화로 비용 절감, 소비자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여 배송지연·재고 문제해결 |
| | 포드 | 멕시코 → 미국 | ·미국 오하이오·미시간주로 이전. 자율주행차 및 전기 자동차 공장 설립 계획 발표<br>·약 2,000개의 일자리 창출 |
| | GE | 멕시코 → 미국 | ·냉장고, 온수기, 세탁기 제조라인을 미국으로 이전<br>·약 1,300개의 일자리 창출 |
| | 월풀 | 멕시코 → 미국 | ·'18년 해외 공장의 미국 내 통합<br>·미국의 세탁기 관세 인상 결정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목적 |
| | 캐터필러 | 일본 → 미국 | ·굴착기, 트랙터 제조라인을 텍사스·조지아주로 이전 |
| | 애플 | 중국 → 미국 | ·中 생산시설의 미국 이전(총 1억 달러 투자) |
| | 아이리스오야마 | 중국 → 일본 | ·中 생산 마스크 공장을 일본으로 이전 |
| | JDI | 중국 → 일본 | ·中 생산 차량용 디스플레이 일부를 일본으로 이전 계획 |
| | 혼다 | 멕시코 → 일본 | ·멕시코 생산공장을 일본으로 이전 |
| | 도요타 | 미국·캐나다 → 일본 | ·미국 생산 캠리, 캐나다 생산 렉서스 RX를 일본 공장에서 생산 |
| 제3국 이전 | 파나소닉 | 태국 → 베트남 | ·가전제품 생산 태국공장을 시장 수요가 높은 베트남으로 이전 계획 |
| 중국 잔류 | 에코 | 중국 생산 유지 | ·'팩토리 2025'로 덴마크 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기존 중국공장에서의 생산도 유지 |

* 자료원 : 각종 자료 종합

# Ⅲ Post-코로나19 GVC 재편 전망

## 1 GVC의 지역화(Localized) 및 자국화(Nationalized)

□ **미중 통상분쟁에서 시작된 탈중국화는 북미, EU,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국 중심의 GVC로 블록화**

○ '17년 미중 통상분쟁 이후 시작된 미국의 탈중국화 경향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자국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결과

- '10년 중반 탈중국화 경향은 중국의 경제적 효율성 하락에 따른 투자 전략 다변화 목적으로 현재 탈중국화와는 구분됨.

○ 선진국의 자국 지재권 보호 및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와 중국의 자국 제조업 발전 목적의 산업정책이 맞물리며, GVC 블록화 현상은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예상

□ **(북미)** USMCA를 통해 캐나다, 멕시코와 협력하며 자국 기술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GVC 구축.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목표로 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등 다양한 전략 구상

○ 해외에 진출해있는 미국기업의 리쇼어링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 신흥국 및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투자하는 현상도 심화될 것

□ **(EU)** 제조강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 중심. 전략·내수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제조업의 생산 공급망을 자국 및 주변 유럽국가 내에 구축

○ 글로벌 기업의 기술혁신과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연구 개발(R&D)-생산 공급망-서비스까지 아우르는 가치사슬 체제를 수립하여 유럽간 상호 공조 체제의 GVC로 전환될 것

○ 지재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GVC도 구축될 전망

□ **(아태지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GVC 체제로 분화

○ 일본의 China+1 전략으로 ASEAN 지역에 구축된 GVC를 활용하고, 누적 원산지 적용이 가능한 CPTPP를 통해 탈중국 GVC 구축

□ **(중국)** 동북아시아 공급망 중심지 재편 및 자국 내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 구축 전략 수립

○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수입에 의존하던 중간재를 자체 생산하여 배타적이며 자국 완결적인 가치사슬 형성 추진

**< 지역화되는 GVC 재편 양상 >**

| 구분 | 목적 | 분야 |
|---|---|---|
| **리쇼어링 (Re-shoring)** | 자국 중심의 NVC (National Value Chain)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 안보 및 보안상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 생산 분야 (의료, 의약, 보건, 군수, 에너지 등)<br>• 주력 제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시설 분야<br>• 지재권 보호가 필요한 기술 분야<br>• 제조공정 상 숙련 노동자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 (의약품 제조, 반도체 조립공정) |
| **니어쇼어링 (Near-shoring)** | 자국 중심의 RVC (Regional Value Chain)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 필수·전략적 주요 산업 중 관련 제품을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국가<br>• 지재권 보호 수준이 높은 국가 |
| **원투자국에서 제3국으로의 이전** | FTA 특혜 관세 이용, 주변 지역의 자유무역체제 편입 | • 단순 조립공정이 필요한 분야로, 원투자국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높은 국가<br>• 안정적이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중간재 공급을 대체하는 국가 |
| **원투자국 혹은 중국 잔류** | FTA 특혜 관세 이용, 주변 지역의 자유무역체제 편입 | • 원투자국의 소비시장이 큰 경우, 기존 소비재 산업이나 관련 중간재 생산시설을 그대로 잔류 (단, 지재권 보호가 필요한 분야는 잔류 재고) |

## 2 GVC의 서비스화(Servitized) 및 고도화(Advanced)

□ **제조 생산비 절감 위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고도화된 혁신형 GVC 구축 지향, 기술 선진국들은 미래산업으로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 전망**

○ (서비스화) 기업의 제조능력보다 설계, 소프트웨어,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등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더욱 강조될 것

○ (고도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기존 전통적인 산업과 융합되면서 미래산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 제조 공정에서 핵심기술 보유능력이 더 중요해질 전망

□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혁신형 GVC를 위해 기존 제품생산 위주에서 기술과 서비스 분야로 전환 발생**

○ 자국 내 공급망 구축 시, 제조시설보다 연구개발(R&D)을 통한 무형자산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제품 개발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

□ **로봇·인공지능 등 노동력을 대체하는 스마트공장 설립, 자동화된 생산공정으로 최대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되, 새로운 혁신제품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고부가가치 소재, 기술력이 필요한 중간재, 최종 소비재 제품의 브랜드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에서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창출될 것

**<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 사례 >**

- 전기차는 기존 엔진형 자동차와 달리 수많은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로 구성
- 제품의 기능이 표준화되기에 단순 조립생산의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음
- 전기차 브랜드와 자율주행 프로그램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혁신성이 중요
- 대부분의 고부가가치는 **기술력이 필요한 중간재 제조공정, 최종 소비재 제품의 브랜드, 소프트웨어 등에서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창출**될 전망

## 3 GVC의 위기 대응력(Just in case) 제고

### □ 인건비 중심 GVC의 취약성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증명되어 위기 대응력이 높은 GVC로 전환될 전망

○ 인건비 절감 GVC 체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한 체제로의 전환

○ 품목 표준화를 통한 상품간 대체 가능성 향상, 부품 공급업체의 지역 다변화를 통한 대체 생산망 구축, 재고관리 시스템의 개선으로 안정 수급이 가능한 GVC로 전환 예상

### □ 재고확보가 필요한 공정 및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위기 상황에도 빠르게 대응 가능한 생산 공급망 형성

○ (필수산업) 의료장비, 의약품과 같이 자국민의 의료보건, 후생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

○ (안보산업) 에너지, 통신 등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대외 의존적인 GVC가 아닌 자국 중심의 GVC 구축

○ (주력산업) 자국의 주력산업 생산에 투입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원재료 및 중간재 공급지역 다변화 등 재고전략도 변화

## Ⅳ 결론 및 시사점

### □ 코로나19로 GVC는 지역적으로 분화되고, 서비스 분야로 부가가치가 집중될 것이며, 위기 대응을 위한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지재권 보호 규정 강화로 지역화 GVC 체제는 더욱 공고화되며, 자국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선진국 내 직접투자 압박도 예상

○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기술이 전통적인 산업과 융합되면서 미래산업으로 전환도 심화될 것

○ 원산지 기준, 고관세, 환경규제 강화로 중간재 무역은 약화될 전망

### □ 새롭게 재편되는 GVC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은 GVC 재편 양상을 주시하며 대응전략 수립 필요

○ 지역적으로 분화된 GVC가 확산될 경우,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여 미국, EU 등 해당 GVC에 진입하는 전략이 필요

○ 미래산업형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GVC 진입전략도 마련

*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전략, IT기업의 디지털화 전략, 제조업 경쟁력의 이점을 활용한 新GVC 진입전략 등 다양한 전략 마련 필요

○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을 동시조달 구조로 전환하거나 대체 가능한 부품의 재고 확보·관리 능력 제고

○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양한 FTA 등 우리의 통상환경을 활용한 GVC 진입전략 마련도 병행. [끝]

작 성 자

▪ 통상지원팀 이주미

Global Market Report 20-022

#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GVC 재편 동향

## -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 -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9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통상지원팀 (02-3460-7513)
I S B N ▌979-11-6490-464-8 (95320)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